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2009년 9월 19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백승협 베네딕트, 한승효 베네딕트

다음주 독서: 이원제 본도, 김은영 크리스티나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함승효 베네딕트

다음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성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68

교무금: \$1260

매일미사: \$ 5

합계: \$1533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금요교리: 신앙입문	추후 공지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자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가톨릭교리서 2283항>.

지난 5월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옛 교회법(1917년 법전)에는 파문당한 자, 결투로 죽은 자, 자살자는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3년 개정된 새 교회법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992년에 펴낸 새 가톨릭 교리서에도 교회는 자살을 단죄하지만 자살한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자살자가 대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보고 심판하시리라 믿고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제 1 독서> 지혜서 3,1-9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제 2 독서> 로마서 8,31 ~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루카 9,23-26

복 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286 봉헌: 214 성체: 178 파견: 283

† <생명의 말씀>

그 이름도 찬란한 순교자들이시여!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금년은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자행되었던 순교의 현장인 이 땅에서 103위 시성식이 거행된 지 만 25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해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가톨릭 신자인 우리 모두는 벅찬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25년 전 시성 되신 103위 성인들은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집요한 회유와 모진 박해의 순간들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치적 압박에 굴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믿는 바를 고백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흔쾌히 내어놓는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라고 진술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드높이 올려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처럼’(필리 2,8-9 참조) 지금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 온 삶을 투신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순교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삶을 뒤따르는 것이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사셨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마치 절대 가치인 양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적은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라는 물리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밋빛으로 위장된 갖가지 물질적인 유혹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혹의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근원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선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내면적인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그 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선과 가식의 탈을 뒤집어쓴 채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진정성이 담겨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선택의 순간 역시 지금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동안은 인천교구 소속으로 Chicago Theological Union 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고동현 노엘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신부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다음주는 (9/26) 공동체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공동체 저녁 식사를 위해 많은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특히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에서는 따로 첫 영성체 교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영성체 대상 자녀를 둔 교우분들은 입구에 비치된 Sign-Up 용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이나 사목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2010년 예비자 교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비자 교리는 김 아셀라 수녀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비자분들이나 가톨릭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서 예비자 교리 수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의논하고자 하니 예비자교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방학동안 중단되었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서모임 지도는 정원심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하니, 학부생 성서모임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교우분들은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야외미사가 10월 3일 Marshal Park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0 - 오후 3시). 미사, 점심식사, 그리고 간단한 게임/오락등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모든 교우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고향의 가족 친지를 생각하면서, 또 풍성한 가을의 느낌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야외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일정및 악도등은 다음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편이 필요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목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는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 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구역 소식>

❖ 정종연 베드로, 이민선 데레사 가족께서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미시간으로 이주하십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두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4구역 구역모임이 오늘 미사 후 이주형, 임일숙 가족 댁에서 있습니다. 4구역 구역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